초록빛으로 한가득

일상을 ___ 채우다 플랜테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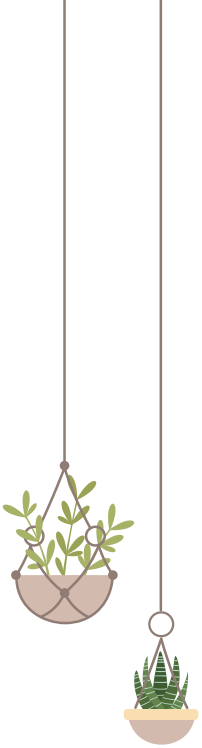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이었던 지난 2년간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식물로 실내를 꾸미는 '플랜테리어'가 높은 인기를 얻었다. 이제 거리두기 제한은 풀리지만, 변덕스러운 날씨와 황사, 미세먼지에 대비해 식물들과 함께하는 일상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글 편집실

초록빛 생명이 선사하는 힐링

플랜테리어는 식물(plant)과 인테리어(interior)의 합성어로, 식물로 실내를 꾸며 공기 정화 효과와 함께 심리적 안정까지 얻을 수 있는 실내 인테리어의 한 방법이다. 미세먼지와 황사가 큰 사회문제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주목받기 시작하던 것이 코로나19로 팬데믹을 맞이하면서 실내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 폭발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다. 기존에는 중장년층의 전유물처럼 테라스나 베란다 같은 공간에서 식물을 키우는 정도였으나, 플랜테리어는 단순히 식물을 키우는 것에서 벗어나 실제 식물 화분뿐만 아니라 조화, 식물 포스터 등 식물과 관련된 다양한 소품들로 실내 분위기를 연출한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식물들과 관련 소품들로 공간 전체를 나만의 취향으로 꾸밀 수 있고, 그 방법 역시 다양해서 선택의 폭이 넓은 것이 장점이다.

무엇보다 식물을 키우는 것은 정서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높다. 2017년부터 실시된 서울시의 저소득 홀몸 어르신 대상 반려식물 보급 사업의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우울감과 외로움 해소, 이웃과 의 친밀감 형성, 실내 환경 개선 등 식물 키우기에 대한 만족



도가 높았다. 또한 2019년 3월 농촌진흥청 발표에 따르면 20㎡ 면적의 거실에 잎 면적 1㎡ 크기의 화분 3~5개를 두면 4시간 동안 초미세 먼지를 20% 줄일 수 있다고 했다. 그만큼 플랜테리어는 단순한 인테리어가 아니라 몸도 마음도 건강해진다는 점에서 현대 사회에 어울리는 라이프스타일의 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식물과 함께하는 일상의 시작

플랜테리어가 너무 거창하고 시작하기 힘들다면 반려식물 집사가 되어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반려동물처럼 일상생활 가까이에 두고 기르는 것이다.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1~2인 가정의 경우, 시간과 경제적 여유가 많이 필요한 반려동물 대신 시공간의 제약과 노력이 적게 들어서 비교적 어렵지 않은 식물 키우기를 추천한다. 반려동물과 마찬가지로 식물과 교감하며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정서적인 안정감도 크다. 무엇보다 사무실 책상 위 한 귀퉁이, 햇빛이 잘 들지 않는 반응달이나 좁은 집이어도 내 취향이나 생활 패턴에 맞는 수종의 작은 화분으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플랜테리어보다 쉽게 시작할 수 있다.

반려식물 키우기를 비롯한 플랜테리어의 첫 단계는 환경에 잘 어울리는 식물을 고르는 것이다. 자연광의 여부와 함께 환기가 잘 되는지를 따져보고 그에 따라 식물을 골라야 한다. 또한, 가정집인지 카페나 사무실 같은 공공시설인지, 그리고 공간의 넓이나 폐쇄성을 따져보고 공간의 쓰임새와 환경에 맞는 식물을 골라야 한다. 그러나 초보자의 경우 무조건 키우기 쉬운 수종을 골라야 한다. 즉, 물과 빛, 통풍에 까다롭지 않은 수종을 골라야 섬세하게 물의 양과 시간을 조절해주거나 빛과 통풍을 신경을 써주지 않아도 잘 성장한다. 초보자의 경우 틸란드시아, 고무나무, 관음죽, 산세베리아, 아레카야자, 해피트리 등 환경 적응력이 좋고 유해 물질 제거에 도움이 되며 비교적 키우기 어렵지 않은 식물을 추천한다.

보통 플랜테리어에 많이 활용되는 식물은 공기정화식물로 미세먼지를 정화하고 실내 습도 조절, 공기정화와 냄새, 전자파, 소음까지 흡수하는 식물들이 많다. 환경에 따라 고른다면 주방이나 현관 또는 화장실에서는 일산화탄소를 제거해주는 스킨답서스나 스파티피름, 안스리움, 파키라 등이 좋다. 침실이나 거실, 서재, 사무실 같은 작은 공간에서는 다육 식물들이 좋은데 많은 물이 필요하지 않고 전자파 차단 효과도 있기 때문이다. 자연광이 많이 부족하다면 조화와 식물 관련 소품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플랜테리어를 시작할 수 있다.